



One-Body One-Spirit MAGAZINE | [www.obos.or.kr](http://www.obos.or.kr)

한마음한몸 | 2013년 봄 | 열일곱번째이야기


 한마음한몸운동본부
 One-Body One-Spirit

**17**  
 SPRING

캄보디아 프레이벵 시골마을에 유치원이 생겼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에서 모인 친구들이

하나 둘씩 모여앉아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

처음 보는 ‘썸냥’과 ‘쏘카’는 마냥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렇게 둘은 오늘 친구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나라, 가난한 마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도

아이들의 미소는 참 해맑습니다.

천사같은 아이들이 꿈을 꾸는 마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 100원으로 꿈꾸는 마을을 만들어 주세요!**

꿈꾸는 마을 만들기 정기후원 가입신청 홈페이지 [www.obos.or.kr](http://www.obos.or.kr) • 정기후원 문의 02.774.3488



캄보디아 프레이벵 지역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내전으로 인한 상처가 많은 지역입니다. 낮은 소득과 높은 실업률로 인해 이 지역 아이들은 교육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2013년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아이들이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지역 9개마을 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희망의 씨앗 심기 장기기증, 제가 하겠습니다

붙일하는 곳

##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신청서

KONOS

등록번호

나는 이웃에게 새 생명을 주고자 아무런 대가 없이 나의 장기를 기증하고자 합니다.

이름	세례명	본당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	
주소	장기기증 등록증 발송을 위해 주소를 정확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이동전화	
정보수신여부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	<input type="checkbox"/>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input type="checkbox"/> 우편물
기증형태   (중복 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뇌사 시 장기등 기증	<input type="checkbox"/> 안구(각막) 기증	
운전면허증에 장기등기증희망자라는 사실을 표시하기를 원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운전면허증 신규발급, 갱신, 재발급 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장기기증에관한법률” 제 15조 제 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7조에 따라 한마음한몸장기기증센터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름	반드시 자필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
법정대리인의동의 (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 ▶▶▶ 첨부서류

- ① 신청인이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 동의하는 사람이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② 신청인이 정신질환자나 지적장애인인 경우 : 정신과 전문의가 본인 동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소견서 1부

## ‘하루 100원 모으기’ 자동이체 출금동의서

이름(세례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3,000원 <input type="checkbox"/> 10,000원 <input type="checkbox"/> 30,000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출금일자   <input type="checkbox"/> 매월 5일 <input type="checkbox"/> 매월 20일	● 출금통장에 “한마음한몸”이라 표시되며, 해당 약정일에 자동 출금됩니다. ● 연말 소득용 납입영수증 발급됩니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계좌주명	계좌주 주민등록번호
계좌주 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이용한 출금에 동의합니다 계좌주   통장의 인감(서명)으로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인) (서명)	

###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 ① 수집 및 이용목적 : 자동이체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② 수집항목 : [개인정보] 성명, 전화번호, 주소, 계좌정보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③ 보유 및 이용기간 :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자동이체 이용 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 ④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신청 절차에 의해 반드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셔야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집을 원치 않으실 경우에는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고유식별정보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본인은 자동이체거래약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금융거래정보(거래금융기관명, 영업장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상기 거래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것과 위 정보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약관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름	반드시 자필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



# 소중한 100원, 큰 나눔의 씨앗입니다

## 하루 100원 모으기 운동

100원이라는 작은 씨앗으로 사랑과 나눔이라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해” I DO! 제가 하겠습니다



✂  
절취선을 따라 오려주세요

## ‘행복·희망의 씨앗’을 심는 2013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점점 팍팍해지고 있다고, 살기 힘들어 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꿈꿀 수 있냐고 한탄합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나눔을 실천하며 다른 이들에게 ‘행복·희망의 씨앗’이 되어 보는 건 어떨까요.

보내는 사람

\_\_\_\_\_  
\_\_\_\_\_  
□ □ □ - □ □ □



접는선  
이 부분은 반으로 접으세요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207-1호

tel 02.774.3488 fax 02.776.7879

www.obos.or.kr

1 0 0 - 8 0 9





한 마음 한 몸


2013년 봄호

열일곱번째이야기

www.obos.or.kr



Cover Story	02
희망의 씨앗	04
희망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	
행복의 씨앗	06
지구촌 빈곤퇴치를 위해 행복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	
Special Story	08
희망으로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다	
현장에서 온 편지	12
희망과 동행의 이야기	
월드 On Air	14
띠앗누리 15기의 사랑여행	
현장 속으로	16
자살예방을 위한 첫걸음	
공간, 나누는 세상	18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나눔가게·나눔기업	
생애첫기부	20
OBOS NEWS	22


**한마음한몸운동본부**
One-Body One-Spirit

한마음한몸 발행일 2013년 3월 31일 통권 제17호

발행인 김용태 발행처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413호

편집디자인 굿모닝컴 글·사진 커뮤니케이션팀 출력·인쇄 프로아트

주소변경 및 문의 후원관리팀 | 02.774.3488 | obos@catholic.or.kr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서 발행하는 계간지 “한마음한몸”은 후원자 분들에게 무료로 배포됩니다.

한마음한몸의 내용은 인터넷(<http://www.obos.or.kr>)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소식지의 저작권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있습니다. Copyright©ONE BODY ONE SPIRIT. all rights reserved

# 희망과 동행의 이야기

(A Story of Hope and Accompaniment)

12

한마음  
한몸

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민간단체해외봉사단원 정연주



**희망**과 동행의 이야기. 지난 2년간 내가 활동했던 반티에이 뿌리업이 20주년을 맞아 발간한 책 제목입니다. 2011년 이 책을 만들 때, 나는 반티에이 뿌리업과 함께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으며 들춰낸 기억들, 그리고 먼지에 쌓여 빛바랜 채 남아있는 기록들을 보면서 이 두 단어를 제목으로 선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 20년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이 두 가치는 항상 반티에이 뿌리업과 함께 해왔고, 또 반티에이 뿌리업을 지탱하는 주춧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년간의 생활을 마무리 하면서, 누군가 나에게 그 2년의 시간들은 어땠는지 혹은 개발 현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다면, 나는 주저없이 이 두 단어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희망’에 대해 내가 처음으로 마음 깊이 체감하게 된 것은 불과 4년 전 일입니다. 2009년 1월, 캄보디아 현장 체험단으로 성인 신체 장애인들이 자립을 위해 직업 교육을 받는 반티에이 뿌리업에서 한 달간 단체 봉사활동을 할 때였습니다. 어렸던 나는 참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20여 년간 보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게 되면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장애인들의 삶을 보면서, 또 그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삶을 선택하여 살 수도 있구나’라는 신선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 공간은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었고, 나는 그 희망을 직접 목격하였으며, 그렇게 나와 반티에이 뿌리업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나는 짧았던 한 달간의 체험을 통해 많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 세상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세계관. 그렇게 나의 가치관이 조금씩 정립되면서 나의 행동, 나의 관심사, 나의 모든 것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나는 대학 졸업 후, 새 희망을 본 반티에이 뿌리업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년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일정은 2년으로 늘어났고, 짧은 날의 경험으로 생각했던 것이 나의 미래로, 그 목적이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 가장 가난한 사람들인 캄보디아의 장애인들과 함께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모습을 매일같이 목격 하면서, 참 행복했



던 기억이었습니다. 또 이런 가치들과 함께라면, 다함께 웃고 배우고 일하는 삶을 살면, 나는 참 행복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에서 취약계층의 사람들과 함께 하며 항상 희망만 보고 항상 행복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화가 날 때도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장애인이나 에이즈 감염인들이 고통받는 것은 사회적 보호 장치 부족으로 인한 가난이 아니라, 사회적 편견이나 소외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놈펜 철거민들을 위한 대표적 단체인 HRTF(Housing Rights Task Force)을 방문하여 만난 철거민들은 보호받아야 할 공권력에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긴 후 얼마 남지 않은 힘으로 겨우 바위에 계란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나는 희망 이후,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에 대해 점차 인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도처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할 때 다시한번 희망을 보여준 것은 바로 **‘동행’**이라는 개념이었다. 특히 나는 이 신념을 센터에서 지내면서 현실로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센터 내에서 경제적·사회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준비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센터를 거쳐간 많은 사람들을 보고 함께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주로 졸업생으로 이루어진 선생님들과 학생들, 외국인 자원봉사자와 캄보디아 현지 직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이 되지 않은 채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주체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서로가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동행의 파트너입니다. 그 결과 센터는 졸업생을 주축으로 20년이 넘게 계속해서 발전하며 지속될 수 있었고, 1,800명이 넘는 졸업생들이 변화된 새 삶을 찾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고 그로 인해 자아와 자존감 또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의 큰 배움을 마쳐가며, 이제는 다른 곳에서 이 배움을 실천하고 또 다른 배움을 갖게 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경험을 통해 체득한 신념을 정직하고 의로운 행동으로 옮기는 일. 그것이 내가 그동안 이곳에서 많이 배우고 받은 만큼 반드시 배풀어야 할 의무일 것입니다. 결국에 이 모든 것은 사람을 사랑하고 또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것이고, 지난 시간 나와 **동행**하며 **희망**을 보여주고,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준 반티에이 뿌리업, 참 고맙습니다. ⊕



# 2013 띠앗누리 15기의 사랑여행

본부의 지구시민교육 프로그램 띠앗누리 15기가 지난 2월5일~6일, 합정동 마리스타 교육관에서 해단식을 끝으로 3개월여에 걸친 프로그램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선발된 15기 단원 15명은 4주에 걸쳐 청년, 빈곤, 환경, 인권을 주제로 교육을 받고 1월 15일~29일, 14박15일 동안 캄보디아 캄땡고 마을 및 반티프리업 장애인 기술학교로 사랑나눔여행을 떠났습니다. 파견된 단원 15명과 스텝 4명은 현지에서 청년 및 현지 주민들과 함께 바나나 나무를 심고, 담장수리, 친환경 퇴비처리장 설치하였으며, 캄땡고 유치원 어린이 90여명을 대상으로 환경과 위생에 대한 교육활동과 관련된 연극을 준비하여 공연하였으며, 반티프리업 장애인 기술학교에서 현지 청년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교류 활동을 펼치고 건강히 돌아왔습니다. 지구촌 이슈에 대한 배움터와 현지활동으로 띠앗누리 15기 단원 모두가 캄보디아에서 얻은 가슴속의 사랑을 이제 세상에 나아가 개인이 속한 공동체에서 나누어 보길 기대합니다.

14

한마음  
한몸

**서창무** 처음엔 막연한 기대로 시작했고, 띠앗누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도 가족의 권유였으며, 무작정 결정했다. 시작이 어찌되었던 간에 나는 자유롭고 싶었고, 그 결과 나는 띠앗누리 15기가 되었다. 사실 크게 달라진 것도 없던 그 때, 나는 본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성당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다. 그냥 나보다 신앙심이 깊어 보이는 친구들 사이에서 창피하지 않기 위해서였던 것 같다. 4번의 배움터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다.

굳이 내가 가지 않아도 되는 날도 단원들과 함께 했다. 집에서 나의 현실에 부딪치는 것보다 그저 그들과 함께 있으면 무언가 하는 것 같았고 편했다. 그렇게 나는 나의 현실을 내던지듯 하며 살았고, 나는 어느 날 캄보디아에 있었다.

좋은 일을 하러 왔다는 생각들이 나를 강박했다. 단체 생활이 익숙하지 않아서 인지 나는 남들보다 더 불만이 많은 것 같다고 느꼈다. 친해졌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내 마음을 털어놔보기도 하고 신부님의 강론 말씀을 들으면서 반성도 해보았다. 하지만 다시금 분노와 마주하게 되면 나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다. 내가 희망을 본 것은 일정이 반이나 흘러갔을 때였다. 대답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그때가 되셔야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사람 간의 문제에서 벗어나니 그제야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아이들이 보였다. 줄곧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아이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 고민이었다. 그 고민은 **‘사랑하는 법’**이라는 질문에 까지 미치게 되었고 완전한 답을 찾지는 못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서 조금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들은 내게 말했다. **‘사랑은 미소이고 판단하지 않음’**이라고 말이다. 마음의 문을 여는 방법을 가르쳐준 아이들에게 가장 감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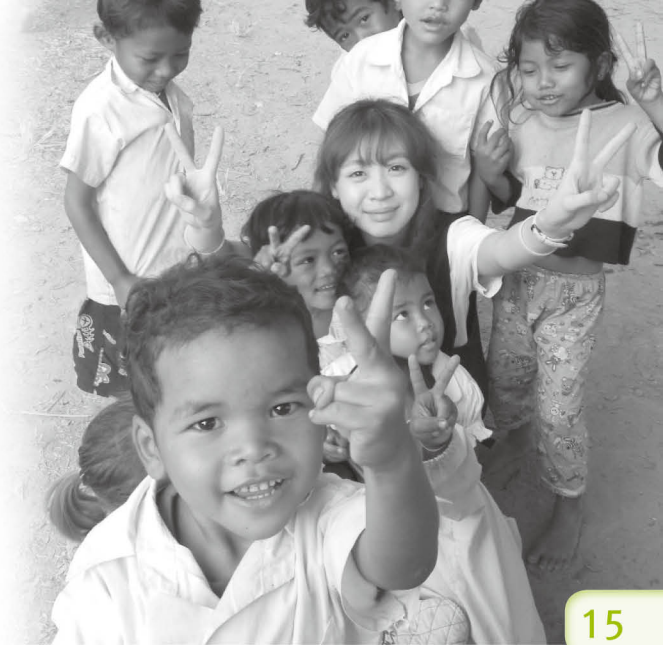
나는 많이 달라져있는 걸까? 이곳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바탕 삼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어떤 것도 내가 무엇을 느





졌다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부끄럽고 불완전하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생겼다.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갈 것이며,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은 이제부터의 노력과 결부되어졌을 때 비로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제 띠앗누리의 일정이 끝남으로 세상 속으로 던져진 내가 마주할 길은 쉽지 않음을 안다. 하지만 이전보다 자유롭게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 동력이 생겼음은 분명하다.

이번 띠앗누리 프로그램을 도와준 모든 분들에게 진정으로 감사함을 느낀다. 그리고 다시 만난 주님께 기댈 수 있게 되어 행복하다. 끝으로 나의 자유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15

월드  
On  
Air

**오유정** 띠앗누리 15기의 첫 만남이었던 오리엔테이션의 추억은 아직도 어색하고 서먹함으로 남아있다. 조용하기만 한 우리들이 하나로 뭉쳐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살짝 했었고, 나 역시 이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라며 걱정이 되기도 했던 그 때는 마치 대학에 입학한 풋풋한 새내기 모습과 같았다.

오리엔테이션 후 첫 번째 만남의 시간인 배움터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고, 4차례의 배움터를 통해 지구시민이 알아야 할 지식과 갖추어야 할 소양을 알게 되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윤곽이 잡혀가는 듯했다.

어느 추운 날, 눈을 떠보니 한 여름 모기장 안이었다. 말이 통하지 않아 오직 몸과 눈빛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며 우리에게 다가와주는 티 없이 맑은 아이들과 정신없이 뛰놀며 하루를 보내고 나면 덩달아 순수해지는 마음과 함께 입가의 미소는 하루가 지나도록 사라지지 않았다.

흙을 퍼오고, 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바르고, 벽돌을 올리며 퇴비소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땀으로 뒤덮인 옷가지들과 흙먼지를 먹어 걸걸한 목이 그 날을 보람차게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로 남겨지곤 했다. 한국에서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돌아와서 생각해보건대, 아마 짜증나는 얼굴과 함께 많은 좋지 않은 표현들로 하루를 이야기하진 않았을까? 반성해 본다. 그 곳에서였기에 우리는 늘 웃으며 장난도 쳐가며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임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곳은 가난해. 전기가 안 들어와. 물이 모자라. 그러니까 그 곳 사람들은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거야’라고 말했었다. 나 역시 캄보디아에 가기 전 지구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 여러 차례 과제를 수행해나가면서 그 문제들이 사람들의 행복까지 침투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띠앗누리를 통해서 가난, 낙후된 환경, 빈약한 각종 시설들 등의 요소들이 사람들의 행복을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그들의 소박한 삶이 오히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며, 그렇기에 더 행복하게 살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띠앗누리를 통해서 캄보디아를 가는 ‘목적’에 대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을 때, 쉽게 대답하지 못했었다. 내가 정말 가고 싶은 이유가 무엇일까. 부끄럽게도 이런저런 좋은 말들로 포장한 핑계로 시작한 여정이었다. 돌아와서야 내가 이를 통해 얻고자 했던 바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가장 먼저 ‘나’에 대해 알게 되었다. 자신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나는 내가 누구인지 또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가치관도 조금 뚜렷해질 수 있었다. **이렇게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더불어 타인을 사랑할 줄 알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함께한 사람들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고 이들은 많은 배움을 얻게 해주었다. 오로지 추억으로 남아 아련하고 그리워하기보다는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잊지 않고 매사에 열심히 임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다짐해본다. ☯

|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와 함께 하는 |

# 자살예방을 위한 첫 걸음

주변 사람이 “나, 죽고 싶어”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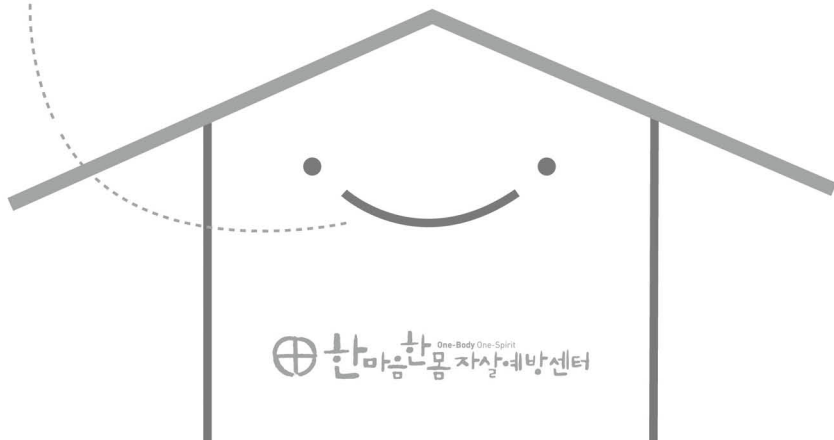
16

한마음  
한몸

함께 살아 숨쉬는 다정한 공간

바람이  
부는대로

햇빛이  
비추는대로



**자살 충동** 을 느끼는 친구나 가족 이 곁에 있다면 우선 많 이 당황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위험에 놓인 당사자 가 도움을 받고자 전문가를 직접 찾을 확률은 더욱 미약합니다. 2011년 정신장애역학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정신질환자의 경우 정신의료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이 미국의 39.2%에 비해 15.3%로 절반이하의 수치를 보인다고 합니다. 정신질환의 경 우가 이러하데 자살 위험에 처한 이들이 정신의료 서비스를 비롯한 전문적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은

더욱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적 도움이 누구보다 절실한 것은 자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사 람들입니다. 주변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때,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은 당황하 기 쉽습니다.

자살예방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너는 혼자가 아니라 내가 옆에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용기를 북돋는 따뜻한 관심과 마음,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많이 힘들지? 그랬구나” 등



의 따뜻한 말로 상대방에 대해 지속적이고 진심 어린 관심과 지지를 이어가는 순간 그들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가 생깁니다.

###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가족이나 친구가 자살생각에 대해 표현할 때 자살 위험성을 우리 스스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살을 결정하는 원인이나 결정과정은 개인마다 다양하고, 때로는 당사자를 잘 안다고 생각하더라도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살생각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거나 모호하게라도 자살을 표현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한 적절한 도움을 받는다면 지금보다 나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강요당한다는 느낌 없이 그의 어려움을 존중하면서 진심으로 걱정되는 마음을 표현하며 부드럽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한다면 당장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아마 그 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것입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상담이나 치료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권유하는 사람이 직접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가 상담 받는 것을 보면 자살하려는 사람이 함께 상담을 받으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살을 모호하게라도 표현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위기상담전화 **1577-0199(24시간 운영)**이나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에 연락**, 반드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혹시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도 무심하게 흘려버리지는 않았는지 주위를 한 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따뜻한 관심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는**  
**생명을 존중하고 희망과 사랑으로**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 희망을 여는 개인 상담

살아가다 보면 눈앞의 모든 것들이 캄캄한 암흑으로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함께 마음을 나누고 자신의 힘을 발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대상 : 자살생각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 상담비 무료 / 개인상담의 경우 방문하여 초기면접 후 상담결정 (주1회 50분)
- ※ 운영시간 월~금요일 (10시~17시)

### 자살예방 캠페인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살예방활동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생명존중·자살예방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 게이트키퍼 교육

자살을 생각하는 친구를 발견하고 돕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 문의 02)318-3079 누리방  
[www.3079.or.kr](http://www.3079.or.kr)



# 나눔가게·나눔기업

가계와 기업에게는 사회공헌 기회를 소비자에게는 일상생활 속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나눔가게·나눔기업

## 나눔 가게·나눔기업 리스트



- 1호점 서울 수색동 미성슈퍼
- 2호점 포항 득량동 손해어
- 3호점 서울 반포동 산삼감정협회
- 4호점 서울 성수동 (주)이피코리아
- 5호점 서울 서초동 이미지넷
- 6호점 서울 필운동 (주)계문사
- 7호점 서울 대치동 예담명가
- 8호점 인천 원창동 참사랑성물
- 9호점 서울 신도림동 정유경심리치료연구소
- 10호점 서울 수서동 (주)무원엔비건축사사무소
- 11호점 수원 권선동 로사리오
- 12호점 서울 여의도동 명동칼국수
- 13호점 분당 서현동 소문정신과의원
- 14호점 서울 도림동 레인보우통식
- 15호점 서울 성수동 (주)유라스텍
- 16호점 대전 도룡동 (주)명산
- 17호점 대전 만년동 (주)장어대가
- 18호점 서울 서교동 형광의 낙화, 눈
- 19호점 서울 수유동 토마토도시락
- 20호점 강원 평창읍 평창할인마트
- 21호점 전남 화장동 푸른농장 2호
- 22호점 전남 소라면 푸른농장 중립점
- 23호점 서울 신도림동 태영프라자약국

- 24호점 충북 청주 분평동 고리의 영어학원
- 25호점 서울 동선동 하티헤어
- 26호점 서울 개봉동 주인공 개봉센터
- 27호점 서울 고덕동 미리암약국
- 28호점 경기 파주시 월롱면 한국매점
- 29호점 서울 명동 주날개밀
- 30호점 경기 상대원동 (주)골드씨아이
- 31호점 경북 포항시 오천읍 한솔도시락 포항 문덕점
- 32호점 충북 청주시 석교동 오색떡집
- 33호점 서울 개봉2동 두덴호프
- 34호점 서울 석촌동 김민헤어테크
- 35호점 전남 장성군 삼계면 가마솔보신탕
- 36호점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안젤리 성물방
- 37호점 서울 마포구 신수동 코코가츠
- 38호점 서울 강서구 방화1동 스피드메이트 방화점
- 39호점 대구 동구 지묘동 아숲심리치유센터
- 40호점 서울 중구 광희동 다모아 편의점
- 41호점 서울 금천구 시흥동 로사나눔터
- 42호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우리피부비뇨기과
- 43호점 서울 종로구 안국동 투썸플레이스 안국점
- 44호점 서울 광진구 중곡4동 호프나라
- 45호점 성남 중원구 이장우의 사랑해어
- 46호점 부산 동구 초량3동 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18

한마음  
한몸



## 나눔가게·나눔기업 코코가츠

37호점



나눔가게·나눔기업 서른일곱번째 주인공은 수제돈까스 전문점 코코가츠 입니다. 신청자 서병권님은 아내 분과 함께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장기기증희망신청

을 해주셨는데, 그 후 매달마다 정기후원을 해주시 며 장기기증운동 뿐만 아니라 해외개발협력 등 본부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응원을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빈곤 등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많은 곳에 관심을 가지며 본부를 포함하여 무려 10여 단체에 기부를 실천하고 있는 서병권님 부부는 손님들이 코코가츠의 돈가스를 맛있게 먹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하시는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나눔도 실천하러 코코가츠에 가보시는건 어떤지요? 땅콩잼으로 만드는 코코가츠만의 수제돈까스와 돈부리. 벌써부터 배가 고파 지네요^^

대표 : 박윤숙 (임마누엘라)

서울 마포구 신수동 10-2층 코코가츠

Tel : 02-711-5597





## 나눔가게·나눔기업 스피드메이트 방화점

38호점



스피드메이트 방화점은 각종 정비 점검 및 소모품 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동차 전문 정비매장입니다. 신청자 윤상석(라파엘) 대표는 지구촌 빈곤아동과 사회, 경제적 환경으로 해체되어 가는 가족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에 주일 미사를 봉헌하며 후보 안에 있던 소식지를 통해 처음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나눔가게·나눔기업 소식을 접하였다고 합니다. ‘비록 작은 나눔이지만 이러한 사랑이 모여서 기적을 이루고, 한 방울의 물이 모여서 바위를 가르듯이 우리의 희망이 모이면 많은 기적들을 이루어 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눔가게에 동참하겠다는 윤상석 대표님.정비 서비스에 대한 열정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까지 자동차 점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스피드메이트 방화점에 한번쯤 들러보시는건 어떨까요?

대표 : 윤상석 (라파엘)

서울 강서구 방화1동 294-10(강서공고 옆)

Tel : 02-2662-5780



19

공간,  
나누는  
세상



## 나눔가게·나눔기업 투썸플레이스 안국점

43호점



인사동과 삼청동사이 나눔에 동참하고자 하는 따뜻한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따뜻한 커피와 달콤한 케익을 즐기며 쉬었다갈 수 있는 곳, 바로 투썸플레이스 안국점입니다. 나눔가게를 신청한 구인회(안젤라) 구태희

(요한) 두 남매분은 함께 투썸플레이스를 운영하던 중 성당주보에 나온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나눔가게 기업 홍보를 보고 믿음 가는 곳에 보탬을 주고자 신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장기기증’이나 ‘하루 100원 모으기’ 등 본부의 나눔운동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모범이 되는 나눔가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투썸플레이스 안국점의 구인회, 구태희 남매분은 앞으로도 질병이나 빈곤으로 고통받는 어린 아이들이 한끼라도 잘 먹을 수 있도록 나눔가게의 저금통에 많은 분들의 마음을 모아주고 또 홍보도 해주시겠다며 되래 감사함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투썸플레이스 안국점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만든 따뜻한 커피와 달콤한 케익도 만나보시고 나눔에도 동참해주세요.

대표 : 구인회 (안젤라), 구태희 (요한)

서울 종로구 안국동 안국빌딩 1층 투썸플레이스

Tel : 02-733-2355

# 생애 첫 기부



아기의 돌잔치·생일·특별한 날 비용을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기부한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아기는 아직 모릅니다. 왜 자신의 생일 사진이 남들과 다른지. 하지만 언젠가 그 이유를 알게 된다면 다른 시작을 열어준 부모님이 많이 고맙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20

한마음  
한몸

- 이슬아 캐서린 (2010.12.10생  
父 이병동/母 김혜원), 15만원
- 최정서 마리아 (2012.01.01생  
父 최근욱/母 한경준), 30만원
- 한원준 (2012.08.28생  
父 한창환/母 이미지), 10만원
- 김지훈 (2011.12.04생  
父 김남성/母 이예리), 50만원
- 이우찬 안토니오 (2007.11.07생  
母 이윤주), 50만원
- 봉하준 라파엘 (2011.12.21생  
父 봉민구/母 조희주), 10만원
- 고요한 요한 (2011.12.20생  
父 고동현/母 곽승현), 100만원
- 김지연 에스텔 (2008.12.05생  
父 김형근/母 박소은), 10만원
- 조현우 요한 (2009.09.20생  
父 조영준/母 심주영), 50만원
- 이승현 루시아 (2011.12.29생  
父 이용훈/母 최은영), 36만5천원
- 소재후 (2012.09.04생  
父 소준섭/母 김수정), 10만원
- 선리엘 (2012.07.21생  
父 선부름/母 김현옥), 10만원
- 금문희 실비아 (1953.01.09생), 50만원
- 윤다애 (2012.09.12생  
父 윤성일/母 최지연), 10만원
- 박민서 (2012.09.04생  
父 박순웅/母 김정연), 10만원
- 박시윤 (2010.03.11생  
父 박순웅/母 김정연), 10만원
- 유은준 (2012.09.04생  
祖母 조순자), 20만원
- 이종욱 라파엘 (2012.09.30생  
父 이민기/母 이안나), 100만원
- 김예윤 (2012.06.27생  
父 김주환/母 유효빈), 5만원
- 김성윤 (2012.06.27생  
父 김주환/母 유효빈), 5만원
- 강하리 마카엘라 (2012.09.12생  
父 강성준/母 이혜민), 50만원
- 양준희 (2011.02.27생  
父 양성용/母 염남옥), 100만원
- 한지호 이나시오 (2011.10.17생  
父 한찬구/母 장여진), 10만원
- 박유나 마카엘라 (2011.09.21생  
父 박재홍/母 임조희), 10만원
- 김려은 (2012.09.01생  
父 김희창/母 김혜진), 10만원
- 유지연 크리스티나 (2012.09.15생  
父 유지수/母 이미정), 50만원

- 신은규 (2012.08.14생  
父 신중현/母 이윤주), 10만원
- 박다원 (2012.01.02생  
父 박재형/母 박수영), 25만원
- 장재우 (2012.09.24생  
父 장지훈/母 송영), 20만원
- 오우준 필립보네리 (2011.02.17생  
父 오주원/母 박경아), 12만원
- 격자명 베드로 (2011.11.02생  
父 권유빈/母 김지선), 100만원
- 신서현 (母 연보라), 10만원
- 박지호 마카엘 (2012.04.02생  
父 박훈/母 홍주연), 100만원
- 김민석 (2012.01.04생  
父 김도영/母 홍은정), 300만원
- 정승엽 베드로 (2011.11.21생  
父 정석영/母 이혜경), 200만원
- 구민주 그라시아 (2007.11.09생  
父 구성관/母 박혜은), 20만원
- 이요한 사도요한 (2011.12.04생  
父 이종혁/母 최진아), 50만원
- 김선후 베드로 (2012.01.04생  
父 김철중/母 강승민), 100만원
- 박가람 크리스티나 (2011.12.28생  
父 박중서/母 임학숙), 30만원
- 정몽건 (2012.09.14생  
父 정진영/母 김지은), 10만원
- 김주원 (2012.01.01생  
父 김건남/母 이지현), 30만원
- 김민서 사도요한 (2007.05.18생  
父 김정희/母 이수은), 50만원
- 김서하 마르가리타 (2009.11.16생  
父 김정희/母 이수은), 50만원
- 박건호 스테파노 (2012.09.20생  
父 박정민/母 김현조), 5만원
- 유예찬 대건 안드레아 (2009.07.14생  
父 유락준/母 윤미영), 50만원
- 유예성 다니엘 (2011.11.23생  
父 유락준/母 윤미영), 50만원
- 정수아 (2012.12.25생  
父 정경식/母 박연하), 100만원
- 정수빈 에스텔 (2010.06.18생  
父 정경식/母 박연하), 100만원
- 정성하 스테파노 (2008.12.25생  
父 정찬호/母 조은모), 60만원
- 이효린 (2012.01.01생  
父 이병창/母 강창경), 20만원
- 이연서 마리아 (2012.01.03생  
父 이민건/母 나인영), 100만원
- 조수아 (2012.01.03생  
父 조태식/母 박은영), 200만원

- 남기울 미카엘 (2011.10.06생  
父 남준우/母 윤소연), 100만원
- 최지인 (2012.01.29생  
父 최상규/母 이승은), 20만원
- 김근호 비오 (2012.01.07생  
父 김용무/母 조유경), 20만원
- 홍준기 (2012.01.13생  
父 홍성철/母 변정연), 100만원
- 조하윤 파우스티나 (2011.12.05생  
父 조영훈/母 서현정), 20만원
- 이우찬 (2012.01.18생  
父 이성수/母 김무희), 100만원
- 김주호 세례자요한 (2007.05.25생  
父 김재현/母 김귀라), 50만원
- 전승유 미카엘 (2012.01.21생  
父 전창엽/母 유수진), 200만원
- 유효린 마리아 피아 (2012.01.30생  
父 유태근/母 박소정), 100만원
- 유승주 사도요한 (2012.03.18생  
父 유수영/母 정은울), 50만원
- 조성현 (2012.10.11생  
父 조규준/母 김연주), 20만원
- 장준하 니콜라스 (2007.12.27생  
父 장성용/母 오경숙), 250만원
- 장현서 카트린 (2010.06.09생  
父 장성용/母 오경숙), 250만원
- 권수아 크리스티나 (2006.12.05생  
父 권혁우/母 장윤녕), 10만원
- 권수진 리타 (2009.05.22생  
父 권혁우/母 장윤녕), 10만원
- 권수린 마리아 (2012.06.04생  
父 권혁우/母 장윤녕), 10만원
- 이승현 (2012.10.04생  
父 이도성/母 강신영), 10만원
- 광은샘 소화 데레사 (2012.10.14생  
父 광재혁/母 김현정), 30만원
- 이서울 루치아 (2011.10.20생  
父 이임동/母 조정미), 50만원
- 김태희 (2012.01.06생  
父 김주희/母 이현선), 100만원
- 김도연 비버안나 (2011.10.24생  
父 김재성/母 유애희), 100만원
- 손윤태 (2011.12.22생  
父 손현규/母 강선미), 15만원
- 이선유 보나 (2012.02.01생  
父 이승우/母 김민주), 100만원
- 김보민 보나 (2005.02.11생  
父 김영순/母 백정연), 금반지1돈
- 김민주 마카엘라 (2007.09.16생  
父 김영순/母 백정연), 금반지1돈
- 김도은 에스텔 (2009.04.13생



父 김영순/ 母 백정연, 금반지1돈  
 ● 김도현 사도요한 (2012.01.02생  
 父 김영순/ 母 백정연, 금반지1돈  
 ● 남연우 (2012.01.24생  
 父 남삼백/ 母 정서희), 50만원  
 ● 장이든 (2011.12.26생  
 父 정호남/ 母 서유경), 100만원  
 ● 이가현 아델라이데 (2008.01.23생  
 父 이승현/ 母 조현정), 10만원  
 ● 장여지 로사 (2007.09.18생  
 父 장준호/ 母 최은정), 100만원  
 ● 장재민 (2012.02.02생  
 父 장준호/ 母 최은정), 100만원  
 ● 박성빈 (2010.02.10생  
 父 박동현/ 母 정미영), 10만원  
 ● 문소윤 델핀 (2010.05.03생  
 父 문석민/ 母 신유경), 10만원  
 ● 박해울 루치아노 (2011.01.13생  
 父 박민우/ 母 이경진), 50만원  
 ● 문규림 크리스티나 (2012.02.09생  
 父 문현기/ 母 박마산), 100만원  
 ● 임서울 사무엘 (2011.12.20생  
 父 임용철/ 母 서고운), 50만원  
 ● 정한빛 (2012.01.28생  
 父 정용기/ 母 채선), 20만원  
 ● 고은유 (2012.01.25생  
 父 고성현/ 母 최예진), 50만원  
 ● 유수원 (2012.10.25생  
 父 유경표/ 母 김지현), 121,025원  
 ● 유준오 (2012.10.25생  
 父 유경표/ 母 김지현), 121,025원  
 ● 김수현 라파엘 (2012.08.27생  
 父 김태완/ 母 김달림), 100만원  
 ● 이다해 마리아 (2005.05.03생  
 父 이심호/ 母 서성미), 50만원  
 ● 이다은 라파엘 (2005.05.03생  
 父 이심호/ 母 서성미), 50만원  
 ● 김상현 (2012.09.02생  
 父 김한진/ 母 정수연), 100만원  
 ● 류준우 (2012.01.07생  
 父 류한성/ 母 한지영), 100만원  
 ● 김주원 요한 보스코 (2012.01.30생  
 父 김보선/ 母 양은실), 50만원  
 ● 박예린 데레사 (2012.02.09생  
 父 박호식/ 母 김유정), 50만원  
 ● 박시은 (2012.02.07생  
 父 박진영/ 母 신현주), 50만원  
 ● 임지유 아네스 (2012.01.31생  
 父 임경권/ 母 이정선), 30만원  
 ● 박지윤 (2012.10.20생  
 父 박상은/ 母 이지용), 금반지1돈  
 ● 이지후 (2012.01.31생  
 父 이준수/ 母 김혜진), 100만원  
 ● 김규린 (2012.10.25생  
 父 김재복/ 母 편수아), 50만원  
 ● 민세윤 (2012.02.13생

父 민정재/ 母 이선영), 105만원  
 ● 박민우 (2011.12.24생  
 父 박시윤/ 母 오세정), 365만원  
 ● 손예슬 이사벨라 (1994.08.29생  
 父 손취남/ 母 이현희), 500만원  
 ● 김지안 (2012.01.29생  
 父 김태한/ 母 박혜영), 100만원  
 ● 이해은 (2011.12.26생  
 父 이한성/ 母 한나), 100만원  
 ● 노윤성 (2012.02.20생  
 父 노형일/ 母 송정원), 10만원  
 ● 이지울 로베르토 (2012.02.25생  
 父 이재승/ 母 김나영), 30만원  
 ● 이시윤 (2012.11.07생  
 父 이광재/ 母 정지현), 100만원  
 ● 이호진 (2012.01.30생  
 父 이인균/ 母 신예리), 50만원  
 ● 김시훈 바오로 (2010.12.06생  
 父 김일두/ 母 안정숙), 50만원  
 ● 오승우 (2012.02.15생  
 父 오세훈/ 母 송지혜), 50만원  
 ● 장효정 바울라 (2012.02.14생  
 父 장형식/ 母 윤은주), 20만원  
 ● 박수빈 클라우디아 (2012.11.01생  
 父 박해운/ 母 김지연), 30만원  
 ● 이재민 (2012.02.04생  
 父 이현우/ 母 이선경), 30만원  
 ● 신희성 파트리시오 (2012.03.17생  
 父 신윤수/ 母 이윤정), 30만원  
 ● 양세라 (2012.02.24생  
 父 양윤석/ 母 박혜영), 30만원  
 ● 정태운 바오로 (2012.02.13생  
 父 정대영/ 母 윤슬기), 10만원  
 ● 신정훈 가브리엘 (2012.02.14생  
 父 신인호/ 母 이지원), 30만원  
 ● 김주원 (2012.03.06생  
 父 김희윤/ 母 김수현), 30만원  
 ● 김다울 (2012.10.19생  
 父 김진호/ 母 이선희), 10만원  
 ● 김동한 (2012.02.08생  
 父 김준구/ 母 김수정), 100만원  
 ● 김가은 (2012.11.07생  
 父 김승대/ 母 김지연), 20만원  
 ● 아선우 라파엘 (2011.02.17생  
 父 이승윤/ 母 이수진), 10만원  
 ● 이태현 올리아 (2010.02.24생  
 父 이정혁/ 母 편선민), 10만원  
 ● 이태강 여호수아 (2012.02.24생  
 父 이정혁/ 母 편선민), 10만원  
 ● 광명서 도미니코 (2007.08.11생  
 父 광호민/ 母 김경희), 100만원  
 ● 백인영 가비노 (1989.02.19생  
 父 백승열/ 母 윤경실),  
 20만원

● 백인재 대건 안드레아 (1992.03.07생  
 父 백승열/ 母 윤경실), 20만원  
 ● 김영우 임마누엘 (2011.12.21생  
 父 김재현/ 母 신현경), 100만원  
 ● 박신욱 (2011.03.07생  
 父 박상혁/ 母 김미남), 30만원  
 ● 김규리 엘리사벳 (2012.11.17생  
 父 김태국/ 母 김용희), 50만원  
 ● 유건민 (2010.02.25생  
 父 유형석/ 母 이지원), 20만원  
 ● 이규하 토마스 모어 (2012.03.13생  
 父 이관휘/ 母 석효정), 50만원  
 ● 조원재 (2012.02.18생  
 父 조현우/ 母 강경희), 20만원  
 ● 이지만 보나 (2011.11.19생  
 父 이상규/ 母 이은경), 50만원  
 ● 박설아 (2012.04.24생  
 父 박세현/ 母 손은진), 30만원  
 ● 이동영 (2012.02.21생  
 父 이용윤/ 母 윤정민), 20만원  
 ● 김건우 발렌티노 (2011.02.25생  
 父 김평산/ 母 김선형), 20만원  
 ● 이윤지 데레사 (2005.10.14생  
 父 이진택/ 母 백인애), 5만원  
 ● 이상원 (2009.03.22생  
 父 이진택/ 母 백인애), 5만원  
 ● 김시완 (2012.09.04생  
 父 김중희/ 母 안수현), 100만원  
 ● 이재윤 (2012.11.19생  
 父 이상훈/ 母 이보미), 100만원  
 ● 이제우 다니엘 (2012.02.16생  
 父 이호용/ 母 서은지), 20만원  
 ● 조은우 (2012.03.04생  
 父 조준형/ 母 최나미), 136만5천원  
 ● 최민준 (2012.03.23생  
 父 최지훈/ 母 최선경), 50만원  
 ● 곽여은 (2012.03.31생  
 父 곽동수/ 母 김혜진), 100만원  
 ● 박수빈 엘리사벳 (2002.07.02생  
 父 박현/ 母 임영), 18만원  
 ● 박수완 레오 (2004.06.09생  
 父 박현/ 母 임영), 10만5백원  
 ● 김유신 (2012.03.02생  
 父 김창남/ 母 지현희), 50만원  
 ● 이세인 사무엘 (2012.11.18생  
 父 이윤준/ 母 우혜영), 30만원  
 ● 이대원 (2012.03.02생  
 父 이진우/ 母 장운록), 100만원  
 ● 이윤슬 (2012.03.07생  
 父 이광엽/ 母 윤영민), 100만원

생애첫기부 참여신청 및 문의 02.727.2267

계좌안내 우리은행 454-005324-13-044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OBOS NEWS

## 사업 현장 방문(미얀마)



본부 국제협력팀은 3/3(일)~8(금)까지 미얀마를 방문하여 본부의 협력 기관인 CAD(Country Agency Rural Development), 양곤 대학교, 미얀마 카리타스를 만나 진행중인 사업들에 대한 협의와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특히, 이번 방문일정 중 3/5(화)~6(수) 미얀마 카리타스에서 주관하는 '파트너 미팅'에 참여하여 미얀마 카리타스의 활동에 대한 정보공유와 장기적인 전략 수립을 위한 논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얀마 협력기관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성당에서 꽃피는 사랑이야기



대림기간, 성탄기간 동안 문정2동, 서초

동, 창5동 성당에서 '하루100원모으기 캠페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문정2동 초등부주일학교 친구들 80명은 '사랑의 병뚜껑 저금통'을 직접 만들어 226,260원을 모았습니다. 또한 서초동성당과 창5동성당은 매년 동전을 모아 아프리카, 아시아에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정성을 고스란히 지구촌 빈곤으로 고통받는 이웃에게 전하겠습니다.

## 계성초등학교 첫영성체반 감사헌금 전달



계성초등학교 첫영성체반 학생들이 4개월 동안 감사예물로 모인 1,690,000원을 같은 또래의 백혈병·난치병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해 기부 하였습니다.

친구들은 나눔을 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는 병뚜껑 저금통에 꾸준히 나눔 활동을 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집에 돌아가서도 아픈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통해 돕기로 하였습니다.

## 본부, 민간단체 대표로 '장기기증 활성화 협의회' 참여

생명나눔 문화 조성에 걸림돌이 되는 논란을 해결하고 향후 추진할 정책 방향을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지난 1월29일 보건복지부가 구성한 '장기기증 활성화 협의회'에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민간단체 대표로 참여했습니다.

## 2013 생명존중·자살예방 캠페인 시작!!



2013년 새해를 맞아 센터와 가톨릭신문이 함께 자살예방 캠페인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를 시작합니다. 자살에 대한 자가 점검, 사례와 자살예방 대책 등을 주제로 질문과 답변(Q/A) 방식으로 신문을 통해 연중 격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살 예방에 관심을 갖는 일만으로도, 고통에 신음하는 주위의 소중한 인연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환우지원 현황 (2013년 1~2월)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단위 : 만원)

성명	병명	병원	진료비
정** (남/20세)	악성뇌종양	국립암센터	900
Jord*** (여/2개월)	심실중격결손, 에드워드증후군	서울아산병원	900
소** (남/50세)	간암	국립암센터	200
배** (여/40세)	급성골수성백혈병	국립암센터	700
황** (여/49세)	뇌사자기여신장이식	서울성모병원	700